

# IS, 리비아 호텔 습격 10명 사망

### 괴한 3명 차량폭탄·무차별 사격...포위되자 자폭

### 애초 외신 보도와는 달리 한국인 사망자는 없어

27일(현지시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 고급 호텔이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외국인 등 10명이 사망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 3명이 이날 오전 10시께 트리폴리에 있는 5성급의 코린시아 호텔을 습격했다.

이들은 호텔 정문에서 차량 폭탄 공격을 감행한데 이어 호텔 내부에서 총격전과 인질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 1명과 프랑스인 1명, 타지키스탄인 3명 등 외국인 5명이 숨졌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리비아 내무부 보안국의 이삼 알나스 대변인은 이날 테러 공격으로 리비아인 5명과 미국인

1명, 프랑스인 1명, 타지키스탄인 3명 등 10명 외에 테러범 2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AFP통신 등 일부 외신은 애초 한국인 1명도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한국인 사망자는 없었다.

이번에 폭탄 공격을 받은 코린시아 호텔은 외국 외교관과 사업가, 리비아 정부 관리들이 주로 머무는 리비아 내 최고급 호텔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폭발물이 장착된 조끼를 입은 괴한들은 차량폭탄을 이용해 정문을 공격하고 나서 호텔 로비에서 무차별로 총격을 가했다. 로비에서 괴한과 경비원 간 총격전도 벌어졌다.

또 이번 공격으로 호텔 유리창이 깨지고 주차장에서는 최소 5대의 차량이 무장 대

원들에 의해 불에 탔다.

일부 호텔 직원은 외국인 투숙객 등과 함께 뒷문을 이용해 주차장 쪽으로 달아났다.

무장 괴한들은 이후 호텔 주변을 에워싼 리비아 보안군과 4시간가량 대치한 후 상황이 종료됐다고 리비아 당국은 밝혔다.

이들은 보안군에 포위되자 이 호텔 24층에서 자폭했다고 보안군 대변인 이삼 알나스가 말했다.

리비아의 한 관리는 “호텔은 통제 아래에 있고 현재 더 이상의 인질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IS의 리비아 지부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고 테라·극단주의 감시단체인 ‘시테’(SITE)가 전했다.

이 단체는 최근 아부 아나스 알리비가 사망한 것에 보복하고자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으로 알려진 알리비는 2013년 10월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붙잡혀 미국으로 이송됐으며 이달 초 재판을 앞두고 사망했다.

그는 1998년 케냐 나이로비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220여명을 숨지게 한 동시다발적 폭탄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그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단체는 또 이 호텔이 “이슬람교도가 아닌 외국인 외교 사절단과 보안 관련 회사 직원들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이곳을 공격 목표표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코린시아 호텔에서는 2013년 10월 리비아의 알리 제이단 당시 총리가 무장 단체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리비아는 2011년 이후 전국 각지의 무장단체 간 교전이 지속하면서 현재 한국의 여권사 용제한국(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리비아 내에는 현재 한국 교민 45명 가량이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 축구광 시진핑 ‘축구발전공정’ 착수

### 초·중 과목에 필수과목 지정

### 농구·배구 등도 투자 확대



정했다.

또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2만 개 안팎의 초·중 학교를 ‘축구특색 학교’로 키우고, 200개 수준의 대학축구팀을 설립하며, 30개 정도의 학교축구팀 시범구현(區縣)을 건립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지역 명문 구단의 지분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완다그룹은 지난 21일 4500만 유로(약 564억 2000만원)를 들여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지분 20%를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중국기업이 유럽지역 명문 구단의 지분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다그룹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앞으로 중국에 축구 아카데미 3곳을 설립하고 마드리드에도 3000만 유로(약 376억2000만원)를 공동으로 투자, 중국 유망주들이 축구 유학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짓기로 합의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전방위적인 ‘축구발전 지원’은 취임 이래 각종 공개 석상에서 축구를 화제로 올리며 ‘축구광’으로까지 불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시 주석은 그동안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거론하는 한편 3개 구기종목과 오페라 등 이른바 ‘문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연합뉴스

‘축구광’으로 불리는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근년 들어 축구 인재 양성, 축구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축구발전공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위안구이런(袁貴仁) 교육부장(교육장관)이 이끄는 ‘청소년 교내축구 공작영도소조’를 발족시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CR), 재정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체육총국,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중앙 인사들까지 참여하는 이 소조는 앞으로 중국 청소년 축구사업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위안 부장은 중국이 이미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축구리그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선수 모집시험 등을 도입해 우수한 미래 축구 인재를 양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축구 공작’의 성공사례는 농구, 배구 등 이른바 ‘3대 구기종목’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보(靳京輔)는 28일 청소년 축구 소조 발족은 ‘축구발전’이 이미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말 축구 등 체육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축구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과목으로 지

## 전범 독일의 끝나지 않는 반성

###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년

### 가우크 대통령 “항구적 책임”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의 살아있는 역사 현자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을 맞아 독일의 반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독일 대통령이 “홀로코스트를 되새기는 것은 모든 독일 시민의 도덕적 의무”라고 했다.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에서 열린 70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아우슈비츠는 독일 역사의 일부이고 그것 없이 독일의 정체성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나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항구적 책임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다.

가우크 대통령은 “기억하는 것 만이 아니라, 인간성을 보존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역시 독일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는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연대가 살아있는 곳에서만 변형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나아가 나치 대학살 만행을 뒤운 전 독일은 이후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최고로 잘 지키는 국가가 됐다면 “어떤 형태의 배제와 폭력에도 반대하며 박해와 전쟁, 테러를 피해 안전한 곳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민자 포용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 시리아 코바니 전투서

### IS 외국인전사 다수 사망

### 참전 거부하면 처형하기도

시리아 코바니 전투에서 사망한 ‘이슬람 국가’(IS) 지하디스트 중에는 외국인 전사가 많았다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 전사자 수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사망한 IS 전사는 네 자리 수”라며 이 가운데 외국 국적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첸 등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외국인 숫자를 밝히는 대신 “매우 의미 있는 숫자”라고만 언급했다.

IS는 뛰어난 외국인 전사들을 코바니에 투입했지만 지난 6주 동안 전투에서 밀리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켰다고 그는 덧붙였다.

IS의 전체 사망자 1800명 중 1200명이 코바니 전투에서 사망했으며, IS는 코바니 배치를 거부하는 외국인 전사들을 처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YPG)는 지난 26일 시리아 북부 요충지인 쿠르드족 도시 코바니에서 IS를 패퇴시켰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YPG가 코바니의 90%를 장악하고 있지만, IS는 적응력과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임무를 완수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눈폭탄 맞은 미국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힐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가 눈에 파묻혀 있다. /연합뉴스

#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 “급매” 합니다 희망가격 제시 하십시오 가능한 매매 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 지하 - 51평, 상가
- 1층 - 41평, 상가
- 2층 - 46평, 사무실
-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융 3억8천만원 포함, 보 1억에 월 350만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뒷밭, 도시가스, 전체 울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